

### 마곡사 대중 연기군 위로방문

세종시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 충청지역이 어수선한 가운데 공주 마곡사 스님들이 연기군청을 찾아 지역민들과 고민을 나눴다.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등은 11월 2일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 중 쓰러져 입원치료 중인 유한식 연기군수와 연기군민들을 위로 방문했다.

원혜 스님은 유 군수에게 "산중에 있으면서도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고 '국민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걱정이 들었다"며 "연기군민과 충청인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지역 스님들과 방문하게 됐다"고 격려했다.

조동섭 기자

### 소년원생과 멘토링 자비실천어머니회

자비실천어머니회(회장 해광·천안 자비사 주지)는 11월 6일 청주소년원생을 찾아 소년원생들과 1:1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가정·교육 환경이 열악한 소년원생과 자원봉사자를 1:1 멘토링 결연을 맺음으로써 청년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자비실천어머니회는 천안 자비사,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 신도로 구성된 단체다.

해철 충청지사장

### 삼존불 점안법회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11월 9일 극락전(납골봉안)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회주 우학 스님은 "극락전 삼존불은 18년 전 불교대학 초창기부터 모셔온 부처님으로 이번 화마로부터 납골당 조성 영가님들을 구해준 신통력과 영험이 있는 부처님"이라며 "장엄하게 개금불사된 삼존불불안 점안식에서 신도님들이 큰 환희심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극락전 삼존불은 지난달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훼손된 일부를 보수하면서 개금불사를 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고운사 강원 복원 첫 삽

### 6일 강원 상량식 봉행... 50년 만의 재건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 강원이 50년 만에 복원을 앞두고 11월 6일 강원 상량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실 근일 스님, 회주 혜승 스님을 비롯해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복규 의성군수, 김취동 안동시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호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강원이 소실된 지 50여 년이 흘렀으나 다시 복원해 민족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조선 후기 함흥 선사가 주석하며 후학을 지도할 때의 가풍을 진작시켜 도제양성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시키겠다"고 말했다.

신라고찰 고운사는 창건 당시부터 일본 강점기까지 승가교육을 맡아온 교육전문 도량이었다.



11월 6일 의성 고운사 온수암에서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고운사 강원 상량식 모습.

1934년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했으나 한국전쟁 당시 전소됐다.

6월부터 복원이 시작된 고운사 강원은 옛 온수암 터에 지상 1층, 연면적 234㎡ 규모로 세워진다. 2010년 5월 완공되며, 강원 복원 후에는 도서관 등 부대시설도 건립이 예정됐다.

호성 스님은 "강원이 복원되면 종단 인가를 받아 강원을 열고 학인들을 모집하겠다. 옛 고운사 강원 전통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 조동종 금강계단수계식 봉행 덕우 스님 "초발심 잊지 말고 정진해 달라"



조동종 총무원장은 11월 6일 제12차 금강계단수계신림 대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제12차 금강계단수계식을 11월 6일 서울시 상계동 소재 총무원에서 봉행했다.

행사에는 수계 받은 20여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승정원장 감찰원장 종회의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구족계 수계식 등을 개최했다.

덕우 스님은 "호법불교 목조선의 조동법맥을 이어나가면서 승려로서 초발심을 잊지 말고 수행과 포교에 정진해 달라"며 "종단의 종도들과의 애증심을 잊지 말고 단결하는 모

습으로 종단의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법문했다.

이에 앞선 10월 28~11월 2일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한 각 교구 원장 등 임원진은 10월 28일~11월 2일 캄보디아 및 태국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조동종 성지순례단은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하는 BWC를 방문해 금일봉 등을 전달했다.

창운 경남남부지사장

### 지성 스님 회고록

지성 스님(함께하는세상 이사장·前 동화사 주지)의 출가 50년의 수행을 담은 회고록 <생의 언덕을 넘어서> 출판기념회가 11월 7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명 스님, 前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지하 스님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중원 불교' 세미나

총무대는 11월 10일 캠퍼스 내에서 '중원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제3회 중원문화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원문화 속에 담긴 불교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학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장준식 총청대 교수가 기조강연 '중원문화의 성격과 의미'를, 정제규 문화재청 위원이 '중원지역 불교사상의 변천'을, 김인환 총청대 실장이 '중원지역 불교고고학의 현황'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 김교각 스님 동상 東大에 건립

### 경주캠퍼스, 20일 동상 봉안·100주년 기념관 준공식 봉행

지장보살의 화현으로 '김지장'이라 불린 김교각 스님의 동상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세워진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11월 20일 오전 11시 100주년 기념관 광장에서 100주년 기념관 준공 및 김교각 지장왕보살상 봉안 법요식을 봉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100주년 기념관 5층 강당에서 '김교각 지장왕보살과 동아시아의 불교교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 및 <지장>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학술세미나에는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영담 스님이 기조발제 '지장신앙과 동아시아의 불교교류'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봉안될 김교각 스님 동상(오른쪽)과 동국대 100주년 기념관(위)

를, 장종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연구원이 '김교각 법사와 중국 지장신앙의 전개'를, 인환 스님(前 동국대 교수)이 '한국 지장신앙의 전개와 그 특징'을, 이케미 초류 교토 불교대학 교수가 '일본 지장신앙의 연원과 그 전개'를 발표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은 "100주년 기념관 준공과 함께 지



장왕보살 봉안을 계기로 한·중 우호를 강화하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학을 세계적 특성화 원년의 기회로 삼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전북교구 제16대 총무원장 취임

#### 태고종, 9일 도광 스님 취임법회 봉행

태고종 전북교구는 11월 9일 전주 보문사에서 전북교구 제16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행정부원장 청봉 스님, 교무부원장 법현 스님 등을 비롯해 신임 총무원장 도광 스님(전주 승암사 주지)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도광 스님은 취임사에서 "전북총무원장은 총무원 개설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해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과 번영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교구"라며 "종도들의 화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조직정비 불사를 추진 서로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고, 중현 종법을 준수하는 품도가 조성되는 가운데 투명한 총무행정, 열린 총무행정 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총무원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영산재 전승관을 내년 말까지 건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철 충청지사장

### 문화재정책학회 창립

#### 13일 총회 열려

문화재 정책 환경을 분석해 문화재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학술연구단체가 창립됐다.

한국문화재정책학회(학회장 이삼열·前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는 11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창립총회와 제1회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에서는 '문화재 정책 50년사 재평가와 미래 비전'(엄승용), '우리나라 고도보존법의 현황과 과제'(채미옥), '한국문화재 정책이 있어서 법제와 조직의 과제'(김창규)가 발표됐다.

이삼열 학회장은 "문화재 보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의식 없이 감내하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인문학자는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탐구해 문화재 보존의 당위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과학자는 최적의 정책 수단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해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진주불교사암련 日 조구신사 방문

성덕대왕신종, 상원사종과 함께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종이지만 일본에 소장된 연지사종 반환을 위해 진주사암련 협회가 나섰다.

진주불교사암련 협회(회장 보은·천진선원 주지)는 10월 28~30일 연지사종이 보관된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시 조구신사를 방문했다.



진주불교사암련은 10월 28~30일 연지사종 반환을 위해 방일했다.

이번 답사를 계기로 진주불교사암련협회는 연지사종 반환 범국민운동 등 구체적인 반환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지사종은 높이 111cm, 입자름 66cm 크기로 2구의 비천상 등이 새겨져있다. 일본 신국보 제78호로 예술성과 학술적 연구가치를 지녔다.

조동섭 기자

## 국태민안과 나라경제 살리기 기원 동양 최대 산신행화 점안 대법회 및 만등불사



<크기: 가로 10m x 세로 10m>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본 사찰에서 조성한 동양 최대 산신행화 점안 및 국태민안 기원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재방대덕 큰스님의 법력으로 증명하시어 복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 일 시 : 불기 2553(2009)년 11월 29일 (음 10. 13) 일요일 10시
- 장 소 : 경북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 산 102-1
- 연락처 : 대구 도광사 053-653-8583 / 전승 053-656-1843  
고령산신태량 054-956-0320 / 주지스님 010-2015-7233

주최 : 동양 최대 산신행화 점안 봉행위원회 · 주관 : (재)대한불교 일불선교종 고령 도광사 · 후원 : (재)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총무원